

계곡·하천 곳곳에 ‘불법 평상 장사’ 올해도 극성

해마다 반복되는 계곡 무단점용
입장료·평상 대여비·바가지 여전
법적처벌 근거모호 적발 어려워
전남도 8월 말까지 집중 단속

광주·전남에 2주째 지속되고 있는 폭염 특보로 계곡과 하천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음식점,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과 불법 평상 대여가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서객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화순의 한 계곡을 찾은 A씨는 계곡 입구부터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곳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평상 대여료를 인원수대로 지불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숙박업소 주인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계곡 중앙에 자리 잡은 평상을 이용하기 위해 4만원을 지불하고 나서야 계곡을 이용할 수 있었다.

김씨는 “평상을 이용하지 않고 계곡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입구부터 통제를 해버리니까 별수 없이 돈을 냈다”며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는 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를 진행하는 건지 의문이다”고 호소했다.

취재 결과 해당 계곡은 국유지로 계곡 내 평상을 설치하거나 자릿세를 받는 행위는 불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해당 계곡은 국가 내 사유지인 소하천이라 하천 내 시설물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인데, 현재 허가 신청은 접수된 게 없다”며 “주변을



광주·전남 유명 계곡과 하천 곳곳에서 불법 평상 장사가 올해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 피서객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달 31일 화순의 한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피서객들의 모습.

윤준명 기자

둘러싼 모든 임야는 개인 소유로 하천 내에 설치된 불법 평상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안은 불법 행위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근 계곡의 상황도 마찬가지. 보통 3만~6만원가량의 자릿세를 내고 계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광양의 한 계곡을 다녀왔다는 50대 B씨는 “물놀이하려고 해도 곳곳에 설치된 평상 때문에 불편하다”며 “절제로 된 다리도 있어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B씨는 “평상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산장 주인이 눈치를 주기도 한다”며

“편하게 휴가철을 보내기 위해 계곡을 찾은 건데 불편함만 얻고 온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하천법에 따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할 경우 원상복구 및 철거 조치가 내려지며 이를 어길 시 최고 징

역 2년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매년 피서철이 되면 계곡, 하천 등에서 상인들의 배짱 장사가 횡행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성수기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계 피서지 물가 점검반을 운영하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전무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도내 해수욕장, 계곡, 하천 등 피서지 2639곳을 점검했지만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전남도 일자리 경제와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계곡이 개인 소유지인지, 국유지인지에 따라 법적 처벌 근거가 달라진다”며 “국유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시정조치나 행정조치가 이뤄지지만 국유지와 사유지 구별이 어려운 곳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과 관련해서는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다른 지역보다, 다른 업소보다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고 해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계도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 지역 상인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지자체별로 홍보를 통해 불법 행위와 바가지요금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조선대서 낙뢰 맞은 30대 심정지 병원 이송

광주에서 낙뢰를 맞은 3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5일 광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분께 동구 조선대학교 사회대학 인근에서 30대 A씨가 낙뢰를 맞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치료를 받고 맥박과 호흡

을 회복했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학교 내부 나무에서 떨어진 낙뢰에 감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광주에는 불안정한 대기 상태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으며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정상아 기자

광주 대인시장 급발진 주장 차량 운전자 ‘페달 오조작’ 인정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서 SUV 차량을 몰다 건물을 들이받은 7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페달 오조작’을 시인했다.

5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2시5분께 70대 A씨가 몰던 SUV가 대인시장 제1공영주차장 출구를 빠져나온 직후 맞은편 2공영주차장 방향으로 돌진해 담벼락과 건물 외벽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주차장 담과 상인회사무실 등이 입주한 건물 기둥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으나 계속된 조사 끝에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반복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차

량 오토파킹 기능이 해제된 줄 모르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뒤바꿔 밟은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현장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에도 급발진 정황을 의심할 수 있는 브레이크등 점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알로에, 대두이소플라본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연료
無
첨가제
첨가제
첨가제